

2022학년도 수능 이후 입시 일정

**2021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8일(목) 수능  
18일(목)~22일(월) 문제·정답 이의신청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일(금) 수능 성적 발표  
~15일(수) 수시모집 전형기간  
~16일(목) 수시 합격자 발표  
17일(금)~20일(월) 수시 합격자 등록  
~28일(화)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2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30일(목)~3일(월) 정시 원서접수 기간  
6일(목)~13일(목) 가군 모집 전형  
14일(금)~21일(금) 나군 모집 전형  
22일(토)~29일(토) 다군 모집 전형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일(화)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  
9일(수)~11일(금) 정시 합격자 등록  
~21일(월)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2일(화)~27일(일) 추가모집 접수·합격자 발표  
~28일(월)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대학별 고시 일정(논술·면접)

\*학과별 일정 다른 경우 파란 글씨로 표현

논술		
논술 일자	인문	자연
11월 19일(금)	숭실대	
11월 20일(토)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경희대(국제), 단국대, (죽전)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경희대(국제),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수원대, 울산대
11월 21일(일)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가톨릭대, 수원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가톨릭대, 단국대
11월 22일(월)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가톨릭대
11월 23일(화)		서울과기대
11월 25일(목)	가천대	가천대
11월 26일(금)	연세대(미래), 한국기술교대	가천대
11월 27일(토)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세종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한양대, 광운대, 고려대, (세종) 경북대, 부산대
11월 28일(일)	중앙대, 한국외대, 광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이화여대, 세종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산업기술대
12월 04일(토)	인하대	아주대
12월 05일(일)	아주대	인하대

  

면접		
면접 일자	인문	자연
11월 20일(토)		연세대 활동우수형, 기회균형 I·II
11월 21일(일)	연세대 활동우수형, 기회균형 I·II	
11월 24(수)~26일(금)	연세대 국제형(해외고/검정고시)	연세대 국제형(해외고/검정고시)
11월 26일(금)	서울대 일반전형	서울대 일반전형(의예, 치의예, 수의예 제외)
11월 27일(토)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고려대 학업우수형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서울대 일반전형(의예, 치의예, 수의예)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건국대 KU자기추천(건축, 이학, KU융합, 수의, 사범)
11월 28일(일)		고려대 학업우수형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12월 3일(금)	서울대 지역·기회균형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의예, 치의예, 수의예 제외)
12월 4일(토)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경희대(국제) 네오르네상스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의예, 치의예, 수의예)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건국대 KU자기추천(공학, 상허생명)
12월 5일(일)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건국대 KU자기추천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자연), 한의예(인문) 경희대(국제) 네오르네상스
12월 11일(토)	동국대 Do Dream	동국대 Do Dream
12월 12일(일)	동국대 Do Dream	동국대 Do Dream

달라진 수능점수 산출방식... 성적 예측 어려워졌다

# 가채점은 신속, 활용은 보수적으로... 영역별 반영비율 체크

원점수로 상대적 위치 파악 난항  
당일 가채점하고 익일 등급을 참고  
성적 위치 가능한 후 응시 여부 결정

대학별 수능 점수활용지표 등 상이  
환산점수 기준 지원가능 대학 확인

18일 수능은 마무리됐지만, 대입은 끝나지 않았다. 수시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남아 있고,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전략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앞으로는 수능 가채점 및 성적 분석,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수능 성적 확인 및 지원 대학·학과 선택, 원서 접수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수능 당일 가채점부터... '수시vs정시' 전략 세워야

수능일인 18일 저녁 수능 영역별 정답이 공개되는 대로 수능 가채점을 신속하게 진행해 본인의 성적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수능 가채점 분석을 해 놓으면 12월 10일 수능 성적 발표 직후 빨리 최상의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채점으로는 수능 영역별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북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등급 합격선을 기준으로 본인의 예상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이 단순히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올해는 수능 점수 산출 방법 변화로 가채점 성적으로 실제 수능 성적이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국어와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 간 유틸리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친 후, 각 영역의 응시생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단순 원점수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예상 등급은 입시기관별로 여러 번 업데이트되고, 등급컷 점수가 차이 나기도 한다"며 "난이도로 추정하는 수능 직후보다는 실제 채점 데이터로 추정하는 다음 날의 예상 등급을 참고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채점 이후에는 본인의 등급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시 지원 시 본인의 지원 가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해 보고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수능 직후 주말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지원한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수능 성적 발표 후, 대학별 수능 점수 활용 지표 통해 지원 가능 대학 확인

내달 10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점수의 단순 합산 점수를 기본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찾아야 한다. 단, 단순 합산 점수는 큰 범주 안에서 지원 대학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지원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적히지만 대학이 단순히 표준점수 합, 백분위나 등급평균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는다. 대학은 표준점수 등의 활용 지표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을 적용해 환산점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기 때문이다. 환산 방식은 대학마다 각기 다르다.

이영덕 소장은 "대학별 수능 점수 활용 지표,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별 점수, 탐구 변환 표준점수 등이 상이하니 성적 발표 후에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 합산 점수 기준으로 대략적인 지원 대학을 선택한 후, 입시기관의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 대학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논술전형 등 수시 고사도 철저히

대학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수시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이뤄진다. 특히 논술전형 실시 대학 중 대다수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므로 수능 후 바로 대학별 전형을 준비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이 끝나더라도 이후 논술이나 면접과 같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학별 고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며 "과거 논술 기출이나 면접 후기 등을 살펴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시에서는 최초로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 순번을 받더라도 예년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시전문가 예측이다. 우연철 소장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충원율이 낮은 논술전형의 선발인원은 줄이고 충원율이 높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충원합격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버릴 필요는 없다"며 "물론 수시 지원한 모든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도 정시 지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